

## 콘텐츠제작실습 초급 드라마 기획안 <흔적>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20212440 박경영

1. 제목 : 흔적

2. 기획 의도

“헤어지자.”

사랑했던 연인 관계를 한순간에 남으로 만들 수 있는 단 한 문장이다. 그런데 정말로 이 문장 하나로 우리의 사랑이 없던 것이 되고, 사랑을 속삭였던 상대방을 남처럼 대할 수가 있을까?

헤어진 지 1일 차, 윤성은 여전히 지수를 배웅하기 위한 길로 다닌다.

헤어진 지 2일 차, 아이패드의 비밀번호는 지수의 생일이다.

헤어진 지 3일 차, 지수가 딸기 스무디만 먹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헤어지자는 말로 우리의 관계는 끝났을지라도 여전히 윤성의 감정에는 지수의 흔적이 남았고, 윤성의 일상에는 지수의 흔적이 남았다. 마음과 삶에 남은 흔적을 되짚어보는 순간,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드라마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하게 얽여있는지를 보여주며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든 사람들의 소중함과 애뜻함을 전달한다.

헤어진 이후에도 전 애인의 흔적에 괴로워하던 당신에게 공감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3. 장르

## 드라마

### 4. 형식

웹드라마(웹콘텐츠)

### 5. 줄거리

1년이 넘는 연애 기간 동안 만났던 윤성과 지수, 그러나 지수가 이별을 말하며 둘의 연애는 끝이 난다. 이별의 상처를 경험하게 되며 힘들게 하루 하루를 버티는 윤성과는 다르게 지수는 평소와 다름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모습을 본 윤성은 자신 역시 아무렇지 않다는 듯 지수를 의식하며 과장된 모습으로 다닌다. 그러나 막상 수업을 하기 위해 아이패드를 집어올리면 그 비밀번호는 지수의 생일이고, 자신은 여전히 지수를 배웅하던 길로 다니며, 조원들은 모르는 지수의 음료수 취향을 알고 있다. 분명 헤어졌음에도 일상 곳곳에서 나타나는 지수의 흔적에 윤성은 자꾸만 그녀를 떠올리고 재결합을 꿈꾸게 되는데...

### 6. 등장인물

남자주인공 김윤성 : 중앙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평범한 대학생. 첫사랑인 지수와의 CC는 순탄할 것이라 생각했으나, 지수가 이별을 말하고 나서는 하루하루가 거짓말 같다. 헤어져도 자신은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고하는 구질구질한 면모도 있는 그는, 여전히 지수의 흔적에서 살아가고 있다.

여자주인공 윤지수 : 윤성과 마찬가지로 중앙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제법 오랜 연애 기간을 거친 그녀의 마지막 선택은 이별이었다. 분명 헤어지자는 한 마디로 이 관계를 끝냈을 텐데, 우연인지 자꾸만 윤성과 만나게 된다.

### 7. 제작 계획

1) 제작 일정 : 세부 기획 4월 29일~5월 15일 / 소품과 캐스팅, 로케이션 5월 16일~5월 27일 / 촬영 6월 1일~6월 12일 / 편집 6월 13일~6월 16일

2) 제작비 : 과 사무실에서 카메라를 빌리지 못할 경우 렌탈샵에서 카메라와 렌즈 대여 - 2일 당일 반납 기준 60,000원, 음료 소품 가격 40,000원, 남여주인공 섭외 비용 50,000원 / 총 150,000원

3) 제작 시간

10분~15분 내외

4) 촬영 계획

- 촬영 기간 : 6월 1일부터 6월 12일 사이의 2일을 잡아서 촬영할 예정.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촬영.

- 사용 장비 : Canon 750D 70mm / Canon 80D 18-135 STM. 중형 삼각대.

- 나레이션 및 오디오 삽입이 필요한 경우 촬영 마지막 날 따로 녹음

- 촬영 방식 : 팀플 조원 역할의 보조출연자 한 명이 스크립터 역할을 맡고 배우가 슬레이트 박수를 쳐서 오디오 맞추기. 나머지 촬영과 연출은 본인 담당.

5) 편집 계획

-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편집 기간으로 잡되 촬영이 일찍 끝나면 더 빨리 편집에 들어갈 예정. 삽입 음악은 주로 Youtube library 사용. 자막 첨부 고려.

- 프리미어 프로 사용

- 노이즈 제거와 컷편집을 우선순위로 진행

6) 필요한 엑스트라, 소품, 장소

- 엑스트라 : 윤성의 친구 역할과 팀플 조원으로 등장할 3~4명의 인물이 필요.

- 소품 : 윤성이 주로 사용하는 아이패드, 지수와 찍었던 사진, SNS 계정, 휴대폰, 팀플 회의에서 다같이 사용할 자료, 팀플 중간에 삽입될 음료 에피소드에 필요한 음료

- 장소 : 학교 내의 빈 강의실, 동아리 방, 원룸, 골목길

## S#1 카페 / 낮

윤성 지수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너 원래 이 시간에 아르바이트하잖아. (무언가 불안함을 느낀 듯 테이블 위의 잔을 매만진다.)

지수 (아무 대답 없이 음료만 마시다가 입을 뗀다.) ... 헤어지자.

1) (비스듬하게 투샷. 식물 기준으로 포커스 잡아서.) / (유리창 너머 둘의 모습 풀샷)

2) 윤성 옆모습

3) 잔을 따라 화면도 같이 올라감. 지수 옆모습.

윤성 (놀란 얼굴로 말 더듬는다.) ... 그게 무슨 말이야. 지수야, 우리 다시 한 번 천천히 얘기를...

지수 (윤성의 말을 끊으며) 많이 고민했던 문제야. (줄곧 아래로 내렸던 시선을 윤성에게로 올린다.) 그동안 고마웠어. 미안하기도 했고.

윤성, 가만히 입을 벌린 채 굳은 모습이다.

## S#2 골목 / 낮, 오후면 좋을 듯

S#1의 모습과 같은 윤성의 모습. 트랜지션.

자막 : 헤어진 지 1일 차

친구 (멍하니 있는 윤성을 툭 친다.) 야, 집에 안 가?

윤성 (화들짝 놀라며) 어? 아... 가야지... (멍하니 갈림길 중 왼쪽으로 나선다.)

친구 (이상하다는 듯 윤성 따라간다.) 근데 너 왜 자꾸 이쪽으로 다녀? 여기로 가면 너네 집 돌아가야 하잖아.

윤성 (멍하니 걷다가 무언가 알아차렸다는 듯 걸음 멈춘다.) ... 지수 배웅해주려고... (얼굴 클로즈업) 이쪽으로 가야... (울먹이는 모습)

친구 (당황하며 다급하게) 어우, 야, 야. 우리 다른 길로 가자. 울지 말고!

초라한 둘의 모습 풀샷.

### S#3 동아리 방 / 낮

천천히 클로즈업(이건 편집으로)

S#1의 모습과 같은 윤성의 모습. 트랜지션.

자막 : 헤어진 지 2일 차

정수기 아래에 담긴 병에서 물이 넘쳐 흐른다.

윤성 (멍한 모습)

행인 (뒤에 흘깃거리다가 윤성을 툭툭 친다.) ... 저기요, 물 넘쳐요.

윤성 ...어?! 아, 망했다... (뒤늦게 정수기 버튼을 누르며 물병을 조심스럽게 집어든다.)

축축해진 물병을 들고 동방으로 들어가는 윤성의 모습. 또다시 멍하게 있다가 집중하려는 듯 고개를 빠르게 돌리며 정신차리려 애쓴다.

윤성 일단 강의 먼저 듣고... (자연스럽게 아이패드 잠금을 풀려고 익숙한 네 자리 숫자를 터치한다. 그러다가 확인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멈추는 그의 손.)

아이패드 옆에 놓인 캘린더로 초점이 이동? 카메라가 이동? 하면 지수의 생일이 적혀있다.  
결국 일그러진 모습으로 아이패드를 켜지도 못한 채 얼굴을 감싸쥐는 윤성의 모습. 고독하게  
멀리서 비추면 좋을 듯.

#### S#4 카페 / 낮

S#1의 모습과 같은 윤성의 모습. 트랜지션.

자막 : 헤어진 지 3일 차

조원1 ...성 님. 윤성 님.

윤성 (멍 때리다가) ... 네?

조원1 (어색하게 웃으며) 저희 음료 시켜야 해서요. 윤성님은 뭐 주문하실래요?

윤성 ...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을 못 자서...(메뉴판 바라본다.)

조원2 (카톡 확인하다가) 지수님은 늦으신대요. 음료 먼저 주문해달라고 하는데, 뭐 드시려  
나...

윤성 (자연스럽게 메뉴판 위 딸기 스무디 글자를 가리킨다.) 아마 딸기 스무디 먹을 거예요.

순간 정적.

조원2 ... 어떻게 아세요? 아, 혹시 지수님이랑 아는 사이이신가요?

윤성 (아차 싶은 표정) ... 아, 하하하 (어색한 웃음) 네네... 그냥 친구의 친구?

조원1 아아, 어쩐지~ 어제 카톡방 만들고 인스타 아이디 교환하는데 두 분은 먼저 팔로가  
되어 있더라고요.

윤성 (어색한 웃음) 네, 네...

조원2 저희 그럼 지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주제 먼저 잡고 있을까요?

조원1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과제의 큰 주제는 산업혁명 시기의 사회 모습이라서 노동자 쪽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서서히 작아지는 목소리와 고개를 푹 숙인 채 휴대폰을 만지는 윤성의 모습. 휴대폰 클로즈업 하면 지수의 텅 비어버린 인스타 게시글을 보고 있다.)

회의 내용이 이어지는 가운데, 벌컥 하고 문이 열리며 지수가 들어온다.

방 안을 훑는 지수, 윤성을 발견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인사한다.

지수 안녕하세요. (웃지 않고 적당한 예의) 늦어서 죄송합니다.

조원1, 조원2 안녕하세요, 지수님. 여기 앉으세요.

반면 떨리는 눈으로 지수를 바라보는 윤성. 그런 그와 눈이 마주치면 지수는 또다시 고개를 숙인다.

지수 안녕하세요, 윤성님.

윤성의 입꼬리가 어색하게 올라간다.

윤성 안녕하세요, ... 지수님.

## S#5 동아리 방 / 낮

의기소침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문제집을 한가득 쌓아놓은 채 열심히 공부하는 윤성의 모습.

그런 윤성의 달라진 모습이 당황스러운 친구는 윤성을 기웃거린다.

친구 ... 왜 이래,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잖아.

윤성 (눈 빛내며) ... 언제까지고 그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

(다시 공부 이어나가려다가 멈칫.)

... 어제 팀플에서 지수 봤는데, 존댓말 하더라고. 지수가 그걸 원한다면, 나도 그렇게 해줘야지.

친구 ... (가만히 윤성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 끄덕이며 윤성의 어깨를 툭툭 두드린다.)

그래, 지나간 사랑은 잊어야지...

윤성 (지나간 사랑이라는 말에 여전히 윤성의 눈빛은 내려앉는다. 그러다 분위기 전환을 하려는 듯 고개 빠르게 흔들고는,) ... 캔커피 사오자. 오늘 내가 쓴다.

친구 ... 영. 좋아, 좋아. 우리 열심히 해보자...! (일부러 과장된 몸짓으로 윤성 따라나간다.)

자리에서 일어난 윤성, 복도로 걸어나간다. 뒤따라오는 친구. 코너를 돌던 윤성, 돌연 멈춰선다. 저 멀리 지수의 모습이 보이고 주먹을 쥐는 윤성.

숨을 한 번 크게 내쉬고는 입꼬리 당겨 밝은 미소 지으며 성큼성큼 자판기 앞으로 다가간다.

윤성 (제법 큰 목소리로) 야~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오늘 이 형님이 쓴다! (손으로 자판기 끝부터 끝까지 가리키며 거들먹거리는 몸짓)

친구 (당황한 얼굴) 왜... 왜 이래... 너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

윤성 하하하 (어색한 웃음과 함께 친구의 말을 끊으며 강하게 어깨동무한다.) 뭐? 뭘 고를지 모르겠다고? 내가 추천해줄게!



그러나 그런 그들의 모습 뒤로 지수가 조용히 지나간다. 쳐다보지도 않는 모습. 발걸음이 멀어지자 시끄럽게 오버하던 윤성의 입이 다물어지며 고개를 돌려 지수의 모습을 바라본다.

친구 (옆에서 눈치 없이 목소리만) 야, 근데 왜 하필 많고 많은 음료 중에 컨피던스야?

윤성 (여전히 지수가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 그 애가 자판기 음료는 컨피던스만 마시더라고. 내가 맨날 사줬거든...

윤성의 손에 쥐고 있는 컨피던스 클로즈업.

## S#6 농구장 / 낮

이후로도 계속되는 윤성의 과장스러운 몸짓.

공만 퐁퐁 튀기는 윤성의 모습.

울타리 너머 지나가는 지수.

윤성 (순간 눈 동그래지더니 쩍싸게 앞으로 뛰쳐나가서 골대를 향해 공을 넣는다.) 야, 봤지, 봤지? 이게 농구다~

정작 썰렁한 농구장과 그런 윤성을 애잔한 눈으로 바라보는 친구의 모습.

친구 언제부터 농구가 1인 시위가 되었냐. 아니 이걸 행위 예술이라고 봐야 하나...

퐁퐁 굴러가는 농구공. 그 옆을 지나가는 지수의 모습. 그런데 지수가 매고 있는 가방에는

NBA 마크가 달려있다.

S#7 농구장 / 낮(늦은 오후이면 좋을 듯)

가만히 공만 튕기는 윤성의 모습과 벤치에 앉아있는 친구.

친구 ... 너 지수 때문이지?

윤성 ...

친구 말로는 다 잊었다면서 사실 못 잊었잖아. 농구 좋아하지도 않는 애가 왜 갑자기 잘하는 척을 하고 그래.

윤성 ... 아니야, 농구 좋아해.

농구공 통통통

윤성 지금은 좋아해. 좋아하게 됐어.

그런 윤성의 모습을 보더니 한숨 쉬는 친구.

친구 아직 안 늦었을 거야.

윤성 ... 어?

친구 가서 말해. 잡을 수 있을 때 잡아야지, 더 놓치면 이젠 못 잡아. 헤어지자는 말 들었을 때조차 네 성격상 제대로 답도 못 했을텐데, 이제는 말해야지. 네가 하고 싶은 말.

친구의 말이 끝나자마자 서서히 눈빛이 변하는 윤성의 얼굴. 곧 이어 농구공이 아래로 떨어지

더니 화면 밖으로 사라지고, 달려나가는 윤성의 발 모습이 프레임 아웃.

S#8 캠퍼스 안 / 낮(늦은 오후이면 좋을 듯)

천천히 걸어가는 지수와 그 뒤로 지수를 부르는 윤성의 목소리.

윤성 ...수야! 지수야!

지수 (낮익은 목소리에 뒤돌아본다.)

윤성 (거친 숨을 내쉬면서 지수 앞에 선다.)

상기된 얼굴로 헉헉거리다가 숨을 고르는 윤성

윤성 ... 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지수 ... 뭐데?

윤성 ...좋아해. 좋아해, 지수야.

...다시 만날래?

바람 불고 둘의 모습 멀리서 와이드샷